



곤란함과 고통은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양약이다. <보왕삼매론(寶王三昧論)>

우리를 괴롭히는 일체의 곤란함과 고통은 한 생각 돌이키면 '희망의 씨앗'이 됩니다.

마곡사 주지 원혜 스님



다 같은 생명! 구제역으로 인해 실추된 가축의 수가 200만 마리를 넘어선 가운데 조계종 직할교구(직할교구장 총무원장 자승)는 1월 19일 서울 조계사에서 '구제역 종식 발원 및 희생동물 천도제'를 봉행했다. 종단 중앙총무기반 소임 스님과 구제역 피해 농축산민, 동물보호협회 관계자 등 천도제에 참석한 1000여 사부대중은 하루빨리 구제역이 종식되기를 기원하며 희생동물들의 넋을 위로했다. 행사 참가자들은 희생동물을 추모하는 서원지를 달고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박재관 기자

불교문화상품 안 팔아요. 왜?

142편 수상작 중 단 2건만 상품화... 시장형성과 상품 투자 고민만 되풀이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추진해온 불교문화상품 공모전이 올해도 4회째를 맞았지만 본격적으로 상품화된 제품이 미흡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불교문화상품 공모전은 다양한 불교 콘텐츠를 개발해 불교인구 저변확대와 전문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관련기사3편**

올해도 제4회 불교문화상품전 시상식이 1월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마련됐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박연옥 씨의 '내 마음의 풍경'이 대상에 선정됐다. '내 마음의 풍경'은 금속으로 제작된 불상, 사찰, 연꽃 등의 모양을 중첩시켜 메모나 명함, 필기류를 넣을 수 있도록 고안된 제품이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공모전을 통해 총 142편의 작품을 선정해 왔다. 수상작은 불교적 모티브, 아이디어, 실용성 등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그러나 그동안 출시된 선정작은 1회 입선작인 불교적 문양이 장식된 북마크와 2회 입선작인 단정 문양을 포장에 활용한 티슈 정도다. 이마저도 사업단이 위치한 템플스테이화관 카페에서 판매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모전의 취지가 실종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불교문화 관계자들은 그동안 선정작 중에서 아이디어가 돋보이거나 제품화가 기대되는 작품들이 있었음에도 사업단이 티슈와 책갈피 정도만 출시한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2회 대상작 '연지'는 육조 마개에 연꽃을 연결해 육조에 물을 채우면 연꽃이 수면위에 떠오르는 제품으로 심사위원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3회 우수작으로 선정된 '근 Usb 2.0 HUB'는 불교를 상징하는 만(卍)자를 형상화해 많은 주목을 받았다.

불교문화 상품을 기획·판매하는 한 관계자는 "당신이 왜 상품화가 늦어지니 관심있는 사람들도 자신의 아이디어가 묻힌다고 생각해 출시를 꺼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불교문화사업단은 제품 출시를 위한 후속 작업에 신중한 검토와 세밀한 조사가 필요해 제품 출시가 늦어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사업단은 선정된 작품들의 스토리텔링, 시장성, 생산 업체 선정, 제품화 속도 등을 고려해 제품 출시를 결정하고 있다.

사업단은 공모전에서 선정된 제품이 불교용품점은 물론이고 일반 상품점에서도

판매될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를 위한 판매 루트 개척과 물류·유통을 담당하는 조직이 전무한 실정이다. 공모전을 통해 디자인 및 아이디어 제품이 선정되면 제품화를 위한 후속 작업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불교계 상품 시장이 가나 수공업 수준의 전 근대적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면 아이디어가 좋아도 판매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신뢰할 수 있는 현대적 시장이 형성되지 않으면 판매의 산출과 투자 유치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불교계에 특화된 시장과 생산시설,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인 셈이다.

불교문화사업단 관계자는 "상품 출시를 위해서는 제작, 시장성, 유통, 수익 등을 고민해야 한다. 사업단이 이 부분까지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고민이다. 제작과 유통 문제 해소를 위해 내부 논의 중이다"라고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 재무부 관계자는 "종단에서도 불교문화상품 활성화를 위해 관심을 갖고 사업단과 꾸준히 논의 중이다. 수익개발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기범 기자 smile2@dnamnet

“조계종 수익사업 철없는 결정 아쉽다”

페이스북 '부루나'에는 불교 희망·비판 메시지 가득

스마트폰 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인기다.

교계에서도 페이스북을 이용한 커뮤니티 활동이 활발하다. 3개월 전 개설된 비공개 커뮤니티인 '부루나'는 교계 안팎에서 활동 중인 스님, 불자 300여 명이 활동 중이다.

'부루나'에서는 불교의 교학적 논의부터 현 정부에 대한 비판, 일간지에 비추진 불교계 소식 등 다양한 글들이 게재되고 댓글을 달아 의견을 공유하고 있다.

최근 상조사업, 먹는샘물 사업 등 수익사업의 전개를 진행하는 조계종에 대한 우려를 담은 글들에 많은 댓글들이 달려 눈길을 끌었다.

처음 이 글을 게재한 A씨는 "조계종이 상조사업, 먹는샘물 사업에 이어 2555년에는 된장 등 전통식품 사업을 모색하고 있는 건데 나가 문화재보수 등 전통건축 사업에도 뛰어들 모양이다. 건설 사업을 잘하면 한 밀전을 남길 수 있다는 기대감에 종단에 그런 조인을 한 사람이 있는 모양"이라며 "종단이 건설사를 실행해 돈 되는 문화재보수 공사를 모조리 싹쓸이하면 돈이 될 것이라는 갑언이설이 먹힌 모양인데 그런 독점을 하게 되면 공정거래 위반으로 지탄을 받고 엄청난 과징금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A씨는 "종단의 수익사업이 이런 식으로 철없이 결정되는 것이 심히 걱정된다. 더 걱정되는 것은 과연 수익사업을 부추기는 브로커들의 말대로 돈이 될까는 것이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A씨는 종단의 수익사업은 종교 활동 비율로 따져봤을 때는 불가능하다고 예측했다.

A씨는 "2005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불자 수는 1700만 여 명이다. 1인당 1년

에 1만원씩만 팔아도 1072억 원이니 브로커들의 갑언이설에 넘어갈만하고 장밋빛 청사진에 혹할 만하다"며 "그런데 문제는 통계를 믿고 불교계에 뛰어든 기업이 모두 두 손 두 발 들고 나갔다는 사실이다. 통신사, 카드사, 상조회사, 샘물사업 회사도 통계만 믿고 뛰어들었다가 초라한 현실에 발을 빼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A씨는 이어 "2003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개신교는 주1회 예배활동 비율이 40.6%이고 가톨릭은 36.0%인데 불교는 주1회 법회참석률이 2.3%에 불과하다"며 "이것은 월 1회 법회에 참석하는 신도가 130만 명이라는 이야기이고 사찰평균으로 하면 92명이다. 조계종 사찰 3000곳으로 따진다면 433명에 불과하다. 불교를 상대로 사업을 할 경우 433명 중 몇 명이 구매를 할까"라고 개제했다.

A씨의 글에는 많은 수의 댓글이 달렸다. 한 누리꾼은 "불교도 수익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판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마음을 합쳐 잘 해보고자 하는 것이 더욱 절실하다"고 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수익사업에 앞서 좀 더 많은 발전과 노력, 인식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 먼저다. 우선적으로 부처님 말씀을 듣고 싶고 공부하고 싶은 사람을 위해 TV, 라디오, 컴퓨터 등을 이용한다면 수익사업에 바탕이 되는 불자들이 모일 것"이라고 했다.

수익사업보다는 문화콘텐츠개발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 누리꾼은 "불교 관련 뮤지컬이 만들어져서 불교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아니면 대불원 문화부나 여름대회를 종단에서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제시할 수 있게 하는 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나 기자

CONTENTS

▶9 현장속으로
서산 부석사 겨울 한문학교



▶11 온창하의 선원총림을 가다



▶12 감성으로 가는 부도발기행



▶19 새 연재
이은정 기자의 뽀뽀한 레시피



조계종 전국서 생명살림 법회 봉행

조계종이 종단 산하 3000여 사찰에 4대강사업 현황을 찾아 '생명살림과 환경수호를 위한 정월방생법회'를 봉행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총무원이 법회 장소까지 지정해 법회 운영지침을 하달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이다. 이번 행사는 조계종이 실질적인 4대강 반대 운동을 시작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동섭 기자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발족

불교계 NGO와 신행·포교단체들의 연대기구인 (가칭)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가 발족한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준비위원회는 1월 27-29일 제주 동양콘도에서 기구 발족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는 관련 단체 실무자 40여 명이 참석한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에는 실천불교 전국승가회와 참여불교재가연대 등 NGO와 불교여성개발원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등 실행단체 24개 단체가 참여한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해 4대강생명살림 연대활동, 봉은사 문제, 문수 스님 소신공

양 등 주요 현안마다 공동대응 해왔다. 이때마다 불교계 안팎에서는 불교시민사회가 공동의제를 개발하고 연대활동 전개 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었다는 의견이 분분했다.

준비위원회는 "불교시민사회 활동의 표준화와 역량개발을 위한 공동노력 등을 전개해 단체별 성장과 연대의 상생구조를 만들고자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를 출범하려 한다"고 창립취지를 밝혔다.

워크숍에서는 불교계 단체의 사업 내용 공유와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활동 방향 논의 등이 진행된다.

조동섭 기자

신상품
LED인등·전구

찬덕불교

031)792-6288 / 794-4055

☞ **농인향당**
농인향당의 침향전문점
침향갤러리

침향복강술 · 침향염주 · 침향선향

갤러리 02-738-6777 (조계사 맞은편)
본사 02-3663-6777 www.nihwa.com

“당신과 나누고 소통하고 행복하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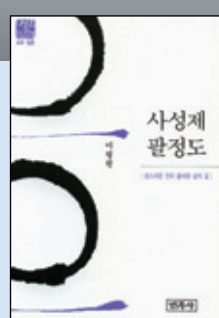


내 영혼은 깊은 사색과 명상을 통해 작은 꽃을 피운다.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기차에서, 비행기에서, 그리고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간편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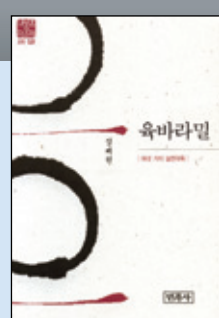
☑ 불교의 다양한 주제를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담아낸 실용적인 민중사 시리즈 책입니다.

» 교리·입문
사성제·팔정도



이필원 _ 값 6,500원
성스러운 진리,
올바른 삶의 길

» 교리·입문
육바라밀



성재현 _ 값 6,500원
여섯 가지 실천 덕목

» 수행·명상
생활명상



김남선 _ 값 6,500원
내 마음 알기,
내 마음 치유하기

» 수행·명상
위빠사나



정준영 _ 값 6,500원
번뇌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유를 찾는다

» 신행·문화
관세음보살



김호성 _ 값 6,500원
나무원세음보살,
자비 실천의 모범

» 신행·문화
아미타불



여여법사 _ 값 6,500원
나무아미타불,
죽고 나서를 기약하지 마세요

» 신행·문화
사심구제



구미래 _ 값 6,500원
고인을 떠나보내는
49일간의 마음 준비